

# 농촌의 새 성장동력 창출한다

## 군산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적극 추진

군산시는 농촌인구 자연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도시민의 농촌유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2019

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군산시는 2021년까지 3년간 6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으로, 귀농귀촌 인 전담 상담인력 확보를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담창구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도시민 농촌유치 및 귀농귀촌 활성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귀농귀촌인 선진지 견학, 예비 귀농귀촌인 농촌현장체험, 귀농인 직거래 마케팅 홍보출장, 지역민과 함께하는 실용교육, 귀농귀촌인 워크숍과 간담회 개최, 단기사골체험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군산시 농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김병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귀농귀촌인의 유입과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가 제4기 블로거기자단을 위촉했다.

## ‘우리는 익산 알리미’

### 시, 제4기 블로거기자단 위촉

익산시가 제4기 블로거기자단을 지난 18일 위촉했다. 익산시 블로거기자단은 지난 2016년 제1기로 시작해 올해로 4기째를 맞았다.

블로거기자단은 전국체전이 치러진 지난해 여러 경기장의 생생한 현장과 각종 행사소식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등 한 해 동안 총 203건의 블로그 기사를 제공했다. 익산시 블로거기자단은 모집 과정에서부터 관심이 이어져 총 80명이 지원했다. 시는 이들 중 20대부터 60대까지 20명을 최종 선정했다. 기자단에는 전문 블로거와 각종 공모전 수상자, 여행·사진작가 등의 포함돼 지역 홍보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신규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블로거기자단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현장 취

재를 통해 익산시의 다양한 소식과 숨겨진 명소, 맛집, 관광지 등을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시의 주요 정책들을 소개하며 시민과 행정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뉴미디어 시대에 SNS를 이용한 온라인 홍보의 중요성이 커져감에 따라 익산시 블로거기자단이 시민과 행정의 소통창구로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함께 지역의 새로운 매력을 발굴하고 전파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 공식블로그 ‘익산에 ON’은 문화, 관광, 축제, 시정소식 등 시민에게 필요한 유익한 정보와 재미를 전달하는 소통 채널로 월 평균 10만여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 군산시농기센터, 소형양배추 해외 수출 효자 노릇 | 대만·일본서 좋은 반응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는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형양배추 수출이 대만과 일본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일으키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더하고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대만 소비자 7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8%인 688명이 군산 소형양배추가 대만산 양배추에 비해 단맛이 강하고 부드러운 적극적인 구매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기존의 코스트코 매장 판매와 더불어 대만지역에 600여개의 점포가 있는 PX 마트에도 올해 4월부터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다.

시에서는 대폭 증가한 소형양배추의 수출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재배면적을 20ha까지 확대하고 연간 800여톤을 생산하여 대만 및 일본 등지에 수출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도 공급할 계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소형양배추가 대만과 일본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획이다.

문현조 기술보급과장은 “지난 12일 일본으로 소형양배추 10톤이 수출됐으며 3월까지도 매월 20톤, 4월부터는 매월 40톤이 수출될 예정이고, 대만에는 4월부터 매월 30톤이 수출될 예정으로 올해 한해 총 690톤의 수출이 계획되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소형양배추를 군산의 특화작물로 육성하기 위해 재배 기반 조성, 수확 후 저장관리, 수출시장 개척, 전용 포장재 개발 등에 힘써 2023년까지 80ha까지 재배면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전체 양배추 재배면적은 7,023ha(201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며 이중 소형양배추는 30여 ha로 추정되며 군산에서 60% 이상이 생산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 저소득층 주거 안정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진

익산시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올해 5억6300만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1800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고효율사업, 에너지복합사업, 가스시설개선사업, 가스시설안전장치 보급사업을 전개한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저소득층 230가구를 대상으로 난방시설(보일러)을 점검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기 위해 추진된다.

에너지복합사업은 기초생활수급가구 285가구와 사회복지시설 78개소의 노후화된 전등을 LED조명으로 교체, 전력효율을 향상시켜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 진행된다. 이 사업은 오는 2월 1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또 저소득층 985가구의 고무호스 가스배관을 금속 가스배관으로 교체하는 가스시설개선사업을 실시한다. /김재훈 기자

## 군산시,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차단 행정력 집중

최근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전년 대비 야생조류의 유입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군산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기축전염성 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조류가 머

무는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광역방제기를 동원해 집중 소독에 나서고 있으며 가금농장의 축산차량 바퀴 소독매트를 설치하고 소독을 통해 농장 내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금사육농장에 대해 가축방역관, 공중방역수의사 및 전담공무원이 예

찰 및 현지 점검을 하고 있으며, 방역 미흡사항은 즉시 보완하도록 지도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울이고 있는 축산농가도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 원광대, 2019학년도 등록금 동결

원광대학교가 2019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확정했다.

지난 18일 원광대에 따르면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부모 부담 완화와 정부 정책 부응,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원광대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등록금을 동결했다. 또 지난 2012년 6.3%, 2013년 0.6%, 2014년 0.5% 인하에 이어 2015년부터 올해까지 등

등록금을 동결했다.

원광대는 특히 지난 2017년 입학금의 단계적 감축을 결정했으며 2018학년도 입학금 20% 인하를 시작으로 10년에 걸쳐 입학 최소비용까지 감축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2018학년도 대비 25.2% 인하된 34만5000원으로 입학금을 책정했다.

한편 원광대는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재정

지원사업 수주, 발전기금 확충 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대학 교육기능인 연구, 교육, 사회봉사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단 없이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군산시농기센터, 지역 농특산물 활성화 추진

군산시는 지역에서 생산한 안전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자체 소비하는 ‘지역 푸드플랜’ 정책과 관련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특산물 홍보갤러리의 새로운 운영주체로 군산원예농협이 선정되어 운영 중으로, 지난해 2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에 788가구가 농산물을 출하해 연 매출 52억원의 성과를 이뤘다. 김병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난

2012년 원찰밭보리 등 지역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개장된 농특산물 홍보 갤러리는 시설 노후화 및 시설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2019년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비 3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에게는 출하농가에게는 농산물 출하에 관련된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 설 명절 과대포장행위 집중 단속

익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불필요한 자원낭비와 소비자 부담 해소를 위해 추진된다.

단속은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된다. 단속 목록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명절 선물 세트류

다. 이 기간 동안 포장 횟수, 공간비율, 재질 등 포장기준 준수여부를 단속한다. 제조 또는 수입, 판매업체에 포장검사명령을 받침이다.

과대포장에 해당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재훈 기자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